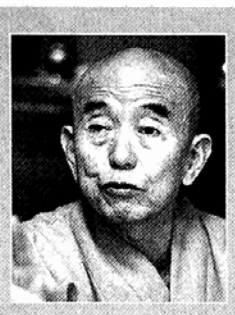
종성스님은



마음이 우주만유와 유정 무정의 근본인가, 초목와석과 산하대지가 방광설법(放光說法)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출가 전 종성스님의 화두였다. 어느 날 〈선가귀감〉의 "이 마음은 텅 비어서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고, 죽어서 깜깜하지 않고 초롱초롱 살아 있다(空寂靈知 惺惺寂寂)"는 구절을 읽고 크게 놀랐다. 내소사 서래선림에 주석하고 계신 해안스님을 시봉하다 37세 되던 해인 1968년 현 고불총림 방장인 서옹스님을 은사로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70년대 초 서옹스님이 조계종 5대 종정으로 계실 때 시봉하기도 했으나, "참선하는 사람은 일단 선지식을 만나 화두견처를 인정받지 못하면 옳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줄곧 떠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며, 공부가 익기 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다. 92년 서옹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제산장실(濟山丈室:제산은 종성스님의 법호)에게 부촉하노라"라는 전법게를 받았다. 10여 년 전부터 봉천동 관악산 기슭에 임제선원을 열어 수행에 전념함과 동시에 길을 묻는 이들을 제접하고 계신다.



◇79년 은사인 서옹스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다. 맨 뒷줄 왼쪽이 종성스님.

들에게 이르시되 '선문의 생명인 종지, 종통, 종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서 공부하면 된다' 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조계선종의 종지, 종통, 종조를 확립하는 바른 길은 성철스님이 세우신 이론에 추호도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정안종사(正眼宗師)의 필생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우리 전 조계종도들은 그 유지를 겸허하게 받들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시급한 본분사입니다."

출가 이후 줄곧 30여년을 오로지 화두선 수행에 전념하고 계신 종성스님의 눈길이 창 밖으로 향했다. 잠시 후 시봉인 법현스님에게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책을 펼쳐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읽어나갔다. "요즈음 사람들이 마음이 오만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바가 많아서 총림에 비록 들어와서도 참구에 게으르고, 더러는 참구할 마음을 가지기는 해도 눈밝은 종사를 택하지 않고 삿된 스승의 그릇된 지도를 받아 함께 바른 법의 뜻을 잃어버리는지라, 육근 육진에 얽매임도 벗어나지 못하고서 번번이 삿된 알음알이로 마구니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법의 인연을 전부 잃어버리도다. 오직 주지직(방장)에 급급하여 외람되게 선지식을 자칭하여 헛된 이름으로써 상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니 죄악이 몸에 배어듦을 말할 것이 있으리요. 이것은 뒷사람들을 눈멀고 귀먹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법의 교풍을 시들어 없어지도록 억압하는 것이다. …"

법안종의 개창 조사인 법안스님이 일찍이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경책한 것은 아니었을까.

침묵이 길어졌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던, 노심초사하는 스님의 심중을 잘 알고 있는 법현스님이 거들었다.

"군맹무상(群盲撫象: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말함)이지요. 여덟 장님의 구구한 의견이 어찌 눈밝은 한 사람의 정견(正見)을 당하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 사자후보살품에서 이르시길, "심안(心眼)이 열리지 못한 중생이 불성(佛性)을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마치 여덟 사람의 장님이 코끼리를 제각기 만져보고서 그 모양을 쟁논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상아를 붙잡고 코끼리를 무쁘리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귀를 붙잡고서 코끼리는 화살통과 같이 생겼다고 말하며, 혹자는 머리를 붙잡고서 코끼리는 차돌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코를 잡고서 코끼리는 절구공이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다리를 잡고서 코끼리는 절구통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등을 만져 보고서 코끼리는 평상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배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단지 같다고 말하며, 혹자는 꼬리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노끈과 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들 모두는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본래 모습을 바르게 보고 말한 것이 아님을 비유로 설하신 것입니다."

> "주지자리 급급하여 선지식 자칭하니 죄악이 몸에 배어들고 뒷사람 눈 귀 멀게"

화제를 돌렸다. "요즈음 마음수련원이다, 아봐타니 해서 새로운 수행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스님의 답변은 단호했다. "자기의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본래 마음자리에서 오직 화두만 들고 나가야지 침공체적(沈空滯寂)의 선정주의(禪定主義)나 능소대립(能所對立)의 소승관법 따위로 오도하는 할안(瞎眼)의 돌팔이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 사야다 존자와 바수반두 존자의 일화를 소개했다.

불조 전등 21조 바수반두 존자가 20조 사야다 존자를 만나기 전에 두루 수행을 하되 하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으며, 하루 여섯 때로 부처님께 예불을 하며, 욕심이 없이 청정한 수행을 하니 승속을 막론하고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어 귀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20조 사야다 존자가 장차 반수반두의 어리석음을 제도하시고자 그 문도들에게 물었다. "이 두루 고행을 하는 중놈이 능히 천상에 나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 가히 불도를 얻을 수 있으랴?"

바수반두의 문도들이 되물었다. "우리 스승의 정진이 이와 같이 훌륭하거늘 어째서 옳지 않다 하십니까?"

"너희 스승은 도와는 아주 머니라. 설사 미진겁이 지나도록 고행을 해도 모두가 허망한 근본이니라."

그 문도들이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며 큰 소리로 사야다존자에게 "존자는 무슨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나무라십니까?" 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사야다 존자가 말했다. "나는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되 또한 전도(顚倒)된 마음이 없고, 나는 예불하지 않되 또한 경만한 마음이 없고, 나는 길게 좌선하지 않되 또한 게으른 마음이 없고, 나는 꼭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은 아니로되 또한 잡된 마음으로 먹지 않고, 나는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없되 또한 탐욕을 일으키는 마음도 없으니 마음 속에 추호라도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을 진여일심의 도라 하느니라." 바수반두가 이 법문을 듣고서 비로소 번뇌가 일어남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의 지혜를 깨달았다.

"대중들의 깜깜무지한 안목으로 볼 때는 바수반두의 고행을 정법으로 알고 모여들었지만, 만약 사야다 존자 한 사람의 정안(正眼)이 아니었던들 바수반두와 그 추종자들은 영원히 허망한 근본에 떨어져 불조의 증득하신 진여일심의 대도는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알기 어려운 정전(正傳)의 심법(心法)인 바 여기에 이르러서 눈밝은 선지식 스님을 표준삼아 공부하지 않고 어리석게 자기 주장을 하며 패거리를 조성하여 거짓말로써 중생들을 속이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비방한다면 진사겁토록 혀를 빼서 땅을 가는 지옥고를 면치 못할 것임을 조사스님들은 경계를 하셨으니 참으로 그 죄보는 무서운 것입니다."

공부인에게 탁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게송 한 수를 부탁드렸다.

"승려가 됐던지 학자가 됐던지 선을 논하고 싶으면, '이 문안에 들어와서는 지해(知解)를 두지 말라(入此門內莫存知解)' 는 것이 선문의 철칙임을 알고 먼저 부지런히 화두부터 참구하여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道得也三十棒 道不得也三十棒
如何是三十棒 喝!

(말해도 삼십방이요, 말하지 않아도 삼십방이니, 이 삼십방이 무엇이냐? 악!)"

글=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현진스님

현진 스님은 10대 중반에 전남 해남 대흥사로 출가하였다. 출가이래 30 여년 동안 좌복 위에서 화두 참구만을 올곧게 해온 수좌 중의 진국이다. '현진' 이라는 법명을 쓰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호를 '노은(老隱)' 이라고 하는데 도반들은 속명인 만수라는 호칭으로 많이 부른다. 도반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주지도 하고 상좌도 두라고 하면 무슨 객적은 소리냐고 화를 내며 말도 못 붙이게 한다. 주지나 상좌가 수행에 무슨 보탬이 되냐는 것이다. 몸뚱이 하나 지탱하고 수행하기도 바쁜데 또 다른 업을 지어서 번거로움을 더한다면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다.

근래에 상당수의 스님들까지도 전통적인 불교 수행과는 상관도 없는 별의별 잡되고 삿된 행법들을 어설프게 익혀가지고 최상의 수행법인 양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다. "무슨 기공이니, 관법이니, 활법이니 하며 설치는 놈들부터 시작하여 남방선이다, 티베트선이다, 요가 수행이다, 심령술이다 하여 온갖 잡것들이 요사비사한 말로 현혹시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수좌들마저 수행관이 제각각이 되어 어지러워진다면, 장차 한국불교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겪은 종단분규보다 더 심각한 질곡에 빠지게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30여년 올곧게 화두참선 효심 지극하고 진솔한 선승

현진 스님은 수년전 제주도 난곡선원의 무문관에서 정진했었다. 그때 스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음을 알리느냐 마느냐로 도반들이 고민을 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알려야 되겠지만 생사해탈을 위해 목숨 걸어놓고 정진하는데 우리가 그 선정을 깨서야 되겠느냐 하여 결국 알리지 않았다. 장례 기간 내내 현진 스님의 속가 친지들이 스님의 행방에 대한 물어왔지만 연락이 안된다고만 대답했다. 사십구재도 청량사에서 도반들이 모셨다.

현진 스님은 모친에 대한 정이 남다른 사람이다. 가끔씩 그는 "우리 오보살님 젖을 12살 때까지 먹었어"하며 향수에 젖기도 했다. 1년 후 무문관에서 해제를 하고 나오고서야 모친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다. 도반들에게야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아픈 마음이야 오죽 했겠는가.

2년전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현진, 합현, 원타스님 등과 함께 정진을 했었다. 인도에서 결제에 들어가기 전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유적지를 답사했다. 중국의 돈황과 티베트의 라사를 경유하여 네팔, 스리랑카와 인도 여행을 했다. 부다가야에서 동안거 결제를 마치고 또다시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를 한달동안 트래킹했는데, 그때 현진 스님의 놀랍고도 감동스런 모습을 보게되었다. 한국을 떠나 이듬해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돌아가신 모친의 왕생극락 발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들리는 사원마다, 전각마다 모든 불상과 불탑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모친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히말라야 산중에는 옴마니반메훔 이라고 쓴 원통이 마을 입구 길 양편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돌리면서 기도를 하게되어 있다. 스님은 지나는 마을마다 매번 원통을 돌리며 발원했다.

해인사는 결제때가 되면 매달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 포살법문을 한다. 한 25년 전 포살법문 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율주이던 일타 스님께서 포살법문을 하셨는데 낭랑한 목소리로 물 흘러가듯 계를 설해 그 모습만 보아도 잠시 해이해졌던 마음이 저절로 추스려졌고 새로운 신심이 솟곤 했다. 하안거 결제 포살법문을 듣기 위하여 수백 대중이 대적광전에 가득히 운집하였다. 이때 율주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 모인 대중이 청정합니까?"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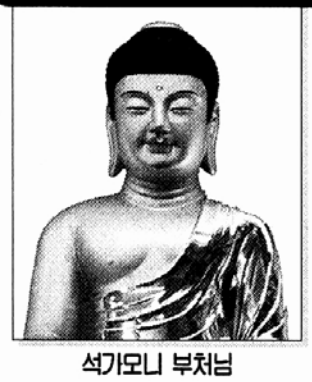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아무 대답이 없으면 대중이 묵연한 연고로 청정한 줄 알고 내가 계를 설할 것이니 잘 받아 지닐지니라 하고는 목차에 따라 계를 설하게 된다.

그런데 그날 율주 스님께서 "여기 모인 대중이 청정합니까?" "여기 모인 대중이 청정합니까?" 하고 두번째 물었을 때 갓 스물 된 수좌 하나가 일어서면서 "여기 청정하지 못한 비구가 있습니다" 했다. 바로 선원에서 정진하던 현진 스님이었다. 율주스님께서 "청정하지 못한 비구는 발로 참회 하시오"하자, 현진 스님은 청정하지 못한 이유로, 목욕하는 날 마을에 내려가서 술과 고기를 먹고 여자의 손도 잡았다면서 참회했다. 율주 스님은 내가 20여 년간 포살계를 설했지만 오늘처럼 그 죄를 발로참회하는 수좌는 처음 보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율주 스님이 어린 수좌에게 당했다(?)며 후일담이 재미를 더하였다.

달밤이면 술 생각이 곡우 날 나무에 물오르듯 한다며 술병을 통째로 비우고도 밤새도록 좌복에 앉아 정진을 하는 선승. 사이비 수행자들이 사이비 수행관을 최상승 수행인 것처럼 판치는 요즘 세태에 분노하는 선승. 섬세한 감성과 지극한 효성을 가진 담백하고도 진솔한 선승이 바로 현진 스님이다. ▩ 정취암 주지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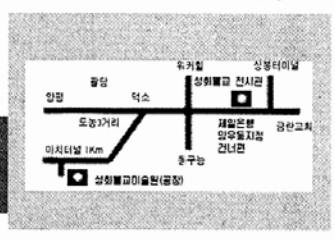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 · 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진성 석재 예술원

귀의 삼보하옵니다.
玉 전문 불사 업체 '진성 석재 예술원' 이
사부대중과 대덕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 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대한민국 명장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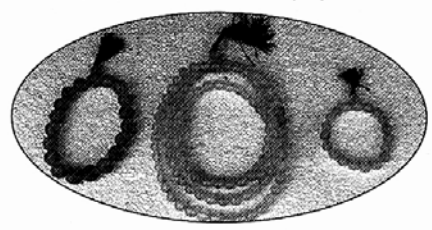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두꺼비(청옥·화옥)


단주 · 16송염주 · 합장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